

다하여 마을 뒤쪽의 약500m떨어진 야산의 소나무숲으로 옮겨졌으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정월 초닷새에 마을 회의를 열어 운이 닿는 사람으로 제관, 축관, 유사를 각기 한 명씩 선정한다. 제사는 일반적인 유교식 제사와 동일하게 치루어진다. 산신제는 본래 음력 상달이나 동짓달에 길일을 택하여 지냈으나 1980년대 초 부터는 거리제와 함께 음력 정월 열나흘날 지냈다.

②法洞 범천골 방죽(방죽제)

약 50년전에 정부의 지원을받아 작은 방죽을 만들었는데 공사를 마친 날짜가 음력 4월 초하루이므로, 그 시간을 기점으로 방죽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방죽제를 15년간 지내왔으나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방죽이 사라지게 되어 현재는 중단되었다.

2)비래동

(1)마을개관

비래동은 마을 북동쪽 골짜기에 비래암(飛來庵)이라는 암자가 일찍부터 있었으므로 그 비래암의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마을이름도 비래리(飛來里)라 하였다. 일설에는 핑이 매에게 쫓겨 이곳에 날아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비래리에 대한 표기를 현재는 '比來里'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시기는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시로 추정하고 있다. 풍수지리학상 비래동은 복치혈이라는 독특한 형국을 나타내는 마을로 마치 핑이 엎드려 있는 형국이라서 이 마을에서는 핑처럼 엎드려 있어야 이롭고, 타지에 나가거나 떠돌면 좋지않다는 속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현재의 비래동은 1969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동서로 양분되었다. 동쪽의 비력골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예전의 주변 환경은 물론 500년을 이어온 고성씨씨 동족마을로 잘 남아있다. 그러나 서쪽은 도시화 되어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2)지명

①비래본동

비래동의 중심 마을은 고성씨씨(固城李氏)의 집성촌인 원비래이다. 이는 이웃에 마을이 생기자 이곳이 본래의 비래마을이라 하여 원비래라 부르게 된 것인데, 그뒤에 음이 변하여 비력골이라 하기도하였다. 이 마을 입구에는 마을에서 가장 먼저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심었다는 약 500여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어 마을의 운치를 더하고 있다. 특히 고성씨씨 집성촌으로써 50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족부락을 유지하고 있는 보기 드문 마을이다.

②새터(新村)

새터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대전인터체인지 요금징수소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써 원비래에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터 또는 신촌이라 불렀다. 이곳은 지형상 산등성이가 길다하여 긴 마루등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곳 역시 고성이씨의 집성촌으로 대략 20~30호가 거주하였다.

③대양

대양마을은 새터에서 동남쪽에 비래공원 입구쪽에 있다. 옛날에는 대양 또는 대양리라 부르던 것을 지금은 땡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마을 앞으로 내가 흐르고 집들이 내를 따라 길게 늘어서는 배산임수형 마을이었다고 한다.

(3)신앙

③比來洞 大陽里 거리제

현재의 성원맨션부근에 있던 선돌 앞에서 지냈던 거리제이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현 위치인 비래동 놀이터로 선돌의 위치가 옮겨졌으며 음력 정월 초사흘날 운수를 보아 제주를 뽑아서 제를 진행했다. 제주는 제사를 주관했으며 그의 부인은 제물을 준비했다. 제주로 선정된 이후에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 바깥출입을 금하고, 제일 일주일전에는 흰 종이를 끼운 금줄을 대문 앞에 드리우고 황토를 피워둔다. 제를 지내기전에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날짜를 미루어 2월 초하루에 제사를 지냈으며 1990년대 초에 제사를 한동안 지내지 않았으나 다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3)송촌동

(1)마을개관

이 지역을 송촌동이라 하게 된 것은 조선 초기에 은진 송씨 쌍청당 송유(雙淸堂 宋愉)가 수원 백씨 집성촌인 배달촌(白達村, 지금의 중리동)에 들어와 정착한 이래 대대로 은진 송씨가 번성하여 동쪽마을을 이루고 살아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리동지역을 처음에는 중리동 지역을 송촌이라 하였다. 그 후 송씨의 자손들이 점차 번창함에 따라 아래송촌(중리동)과 윗송촌(송촌동)으로 나뉘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 송촌동 택지개발사업이 시작되자 많은 은진 송씨들이 보상을 받아 타지로 이주하게 되었고, 송씨의 집성촌의 모습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지명

①윗송촌(上宋村, 元宋村)

송촌동은 송씨가 많이 살아서 송촌이라 하였는데, 이는 상송촌과 아래송촌으로 나뉘어,

상송촌을 송촌의 중심이 된다 하여 원송촌이라 부르고, 아래송촌은 현재의 중리동에 속하고 있다. 대부분 동춘당 송준길과 그의 손자 송광식의 후손들인 은진 송씨들이 대대로 살아왔다.

② 평전말(평전말, 평젯말)

평전말은 윗송촌과 용전동 신동아아파트 사이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평탄하여 평전말이라고 불리웠다.

③ 학대이

학대이는 윗송촌과 진날등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동쪽에 있는 산에는 옛날에 큰 소나무들이 많았는데, 이 나무들에 학들이 자주 날아와서 앉았기 때문에 학당이라고 부른다. 또한 예전에 이곳에 송씨 문중의 아이 무덤을 썼다하여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3. 조사지역 주변 문화재¹⁶⁾

계족산록 서남사면에 위치한 조사지역 일원에는 대전의 주거공간이 중심지에서 외부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많은 문화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공사 구간 주변 500m 이내에는 시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여러 문화유적들이 대전광역시 문화유적분포지도상에서 확인되었고, 이밖에도 비래동 지식묘군이나 송촌동 유적과 같은 고고학적 유적들이 위치하고 있다.

① 비래동 비래암(飛來菴)

비래암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산1번지 옥류각(玉溜閣) 뒤에 위치하였으며, 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졌다.

이 암자는 지금은 사찰이 되었지만, 원래는 송촌(宋村)의 은진송씨(恩津宋氏) 문중에서 자제들의 강학처(講學處)로 세워 불승(佛僧)으로 하여금 상주하여 지키게끔 하였던 곳이다.

창건의 정확한 연대는 모르나 문헌상으로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대부터 이곳의 강학(講學)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송준길의 부(父) 송이창(宋爾昌, 1561~1627)과 송시열의 부 송갑조(宋甲祚, 1574~1628)대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건립시기를 두 분의 생존시기로 따지면 16세기 말엽이나 17세기 초엽이 된다.

이 암자의 처마 밑에 “비래암고사기(飛來菴故事記)” 현판이 걸려 있다. 이 기(記)는 송시

16) 대전 향토사료관(<http://museum.metro.daejeon.kr/new/index.html>)

忠南大學校博物館·韓南大學校 中央博物館,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大田廣域市』

열이 지은 것으로서 여기에 의하면, 송준길이 암자 안에다가 “래유제수재 신물벽서 이오신재(來遊諸秀才 慎勿壁書 以汚新齋)” 13자를 써 붙여 여러 후학들에게 조심하도록 일렀음을 알 수 있다.

② 비래동 옥류각(玉溜閣)

옥류각(玉溜閣)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산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시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옥류각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이 인조 17년(1639)에 세운 건물로 그 건립 방식이 독특하다. 즉 계족산(鷄足山)에서 뻗어 내려온 골짜기 중간쯤에 가로질러 세워 구조도 중층식(重層式)이고 출입도 그 측면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측면의 처마 밑에 “玉溜閣” 현판이 걸려 있다.

이 각의 현 상태는 대청 2칸, 방 1칸으로 되어 있는데 1979년에 편찬된 “은진송씨세적록(恩津宋氏世蹟錄)”에 실린 이 각의 사진을 보면 3칸 전부 대청으로 되어 있어 좌측의 방 1칸은 근래에 꾸며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옥류각으로 들어서는 왼쪽의 암벽 밑 부분에 선생이 직접 쓰신 “초연물외(超然物外)”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③ 비래동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比來寺木造毘盧遮那佛坐像)

비래사목조비로자나불좌상(比來寺木造毘盧遮那佛坐像)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46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유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되어 있다.

비로자나불좌상은 양 어깨를 다 덮은 통견의(通肩衣)에 두 손을 모아 권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있으며, 머리를 앞으로 약간 내밀고 시선을 아래로 두어 굽어보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다.

적당히 큰 귀를 갖춘 머리에는 큼직한 반원형의 중간 계주와 정상 계주를 갖추었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뚜렷하다. 특히 가슴 앞에서 모아 감싸 쥐고 있는 두 손과 이목구비의 표현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마치 인체를 묘사한 듯 한 사실적인 조각기법이다.

불상에서는 개금중수기와 목판본 「대불정수능엄신주(大佛頂首楞嚴神呪)」 다라니가 발견되었으며, 바닥에는 1650년 조성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順治八年庚寅…受法畫員 無染比丘…).

④ 비래동 향나무

향나무는 대전광역시 비래동 468번지 비래사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높이 8m, 지름 1.7m이고, 수령은 190년 정도이다. 향나무는 가지가 매우 적은 편이고, 여러 군데에 외과 수술한 흔적이 보일 정도로 생육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비래동 초연물의 애각(超然物外 崖刻)

애각(崖刻)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산 1번지 비래골 옥류각 입구의 왼쪽 암벽 밑에 새겨져 있다. 이 암각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이 새긴 것으로 초연(超然)은 세상이나 남과 관계하지 않음을 뜻하는데, 물질에서 벗어나 초연히 뛰어나게 하라는 것이다.

⑥ 비래동 느티나무

비래동 느티나무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산 1-2번지 비래사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옥류각 앞에 위치하고 있다. 나무의 높이는 15m이고, 지름은 2m이며, 수령은 120년 정도이다.

⑦ 송촌동 송병하 묘(宋炳夏 墓)

송병하 묘(宋炳夏 墓)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산 1-1번지 선비마을 3단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응봉산으로 올라가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를 통과해서 오른쪽 산길로 약 20m지점에 위치한다. 송병하는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손자로서 숙종 12년(1686)에 벼슬길에 올라 후에 장약원정에 이르렀다.

비석의 전체높이 265cm, 비석높이 171cm, 폭 72.5cm, 두께 32cm이며 비석의 전면대자에는 “有明朝鮮通訓大夫掌藥院正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都摠府 副摠官宋公炳夏之墓 贈貞夫人安定羅氏附左”라고 새겨져 있다.

⑨ 송촌동 송요화 묘(宋堯和 墓)

조선후기의 문신인 송요화의 묘로써 선비마을3단지가 끝나는 지점에서 응봉산으로 올라가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도를 통과해서 오른쪽 산길로 약 40m지점에 위치한다. 묘비는 1912년에 세워졌으며 전면에 “有明朝鮮 通訓大夫 知中樞府事 宋公諱堯和之墓 安東金氏附左”라고 적혀 있다.

⑩ 비래동 지석묘군(支石墓群)

현재까지 3기의 지석묘가 조사됐으며 이 중 1·2호가 시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축조수법은 개석식이며, 1호 지석묘에서 비파형동검을 비롯하여 홍도, 삼각만입촉 등이 출토되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⑪ 비래동 느티나무 I

송촌동 선비마을 아파트 5단지 뒤쪽으로 경부고속도로 아래를 지나면 비래사로 가는 길이 나온다. 느티나무는 비래사 가는 길의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16m, 지름 1.6m이고, 수령은 550년 정도이다.

⑫ 송촌동 유적 I

이 유적은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에 따른 구제발굴의 일환으로 조사되었는데, 동-서의 능선방향을 따라 장방형의 삼국시대 집자리 4기가 확인되었고, 집자리 1기를 파괴하며 시대미상의 돌덧널무덤 1기가 조영되었으며 북쪽 하단에서 신석기시대 움구덩 1기가 조사되었다.

⑬ 송촌동 유적 II

이 유적은 1995년~1996년간 2차에 걸친 택지개발에 따른 구제발굴의 일환으로 조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제1지구와 제2지구에서 (원)삼국시대 집자리 2기, 널무덤 2기, 움무덤 16기, 독무덤 1기, 그리고 고려시대 돌덧널무덤 1기가 조사되었다. 집자리와 무덤들은 원삼국시대 말에서 삼국시대 초로 비정되고 있다. 현재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유적의 일부만이 남아 있다.

⑭ 법동 범천골 山祭堂(山神祭)

산제당은 본래 범천골 동북쪽 구릉위에 있던 것을 경부고속도로가 나면서 미관상 좋지 않다하여 마을 뒤쪽의 약 500m떨어진 야산의 소나무숲으로 옮겨졌으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산신제는 본래 음력 상달이나 동짓달에 길일을 택하여 지냈으나 1980년대초부터는 거리제와 함께 음력 정월 열 나흘날 지냈다.

⑮ 법동 범천골 방죽(방죽祭)

약 50년 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작은 방죽을 만들었는데 공사를 마친 날짜가 음력 4월 초하루이므로, 그 시간을 기점으로 방죽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방죽제를 15년간 지내왔으나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방죽이 사라지게 되어 현재는 중단되었다.

⑯ 법동 선사유물산포지

법동소류지 주변은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서 유적은 법동소류지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매봉골이라는 골짜기의 좌우측 능선에 해당한다. 현재 유적일대는 경작지와 과수원으로 이용되어 일부 지형이 변경되었고,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과 연질의 적갈색토기 구연부가 수습된 바 있다.

IV.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본 조사는 계족산 임도신설공사 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로서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 비래동~법동 일대(계족산 일대)에 위치하며, 전체 조사대상 면적은 42,723m²(연장 4.6km)에 해당된다. 조사범위는 임도신설구간 전체와 그 경계로부터 50m 범위의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탐색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공사구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2009년 1월 6일까지 총 12일간(현장조사 1일)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으나 이미 공사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이고, 이에 따른 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제반 절차가 시급히 진행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에 보고서 인쇄 등의 제반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2008년 12월 31일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 대한 문화재 분포 현황을 문화유적분포지도, 각종 조사연구보고서 및 학술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하고, 조사대상지역과 관련된 고지도 및 측량, 사진자료 등을 입수하여 조사지역의 지형과 현 이용상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고고·역사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도보로 조사지역과 인접 지역 전반을 정밀 답사하는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관찰이 양호한 편이거나 표토층이 노출된 곳은 육안관찰을 통해 유물의 산포유무와 성격 및 밀도를 조사하였고, 임야지대와 폐기물 등 지장물로 인해 조사가 어려운 곳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드러난 절토단면에 대한 노출작업과 도로 주변 임야지의 토양 샘플링 작업을 병행하면서 가능한 조사의 균일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휴대용GPS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지역내의 각종 문화재에 대한 좌표를 기록하였으며, 각 조사 구간별 현황을 개별적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이번 조사대상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간지대에 해당되고 주변 지역의 민속·지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지표조사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재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금번 조사대상지역은 공사계획 수립 단계에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개발 행위 이전에 시행되었어야 할 문화재 관련 협의 및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된 상태였다. 현재 사업시행처인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문화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영향성 검토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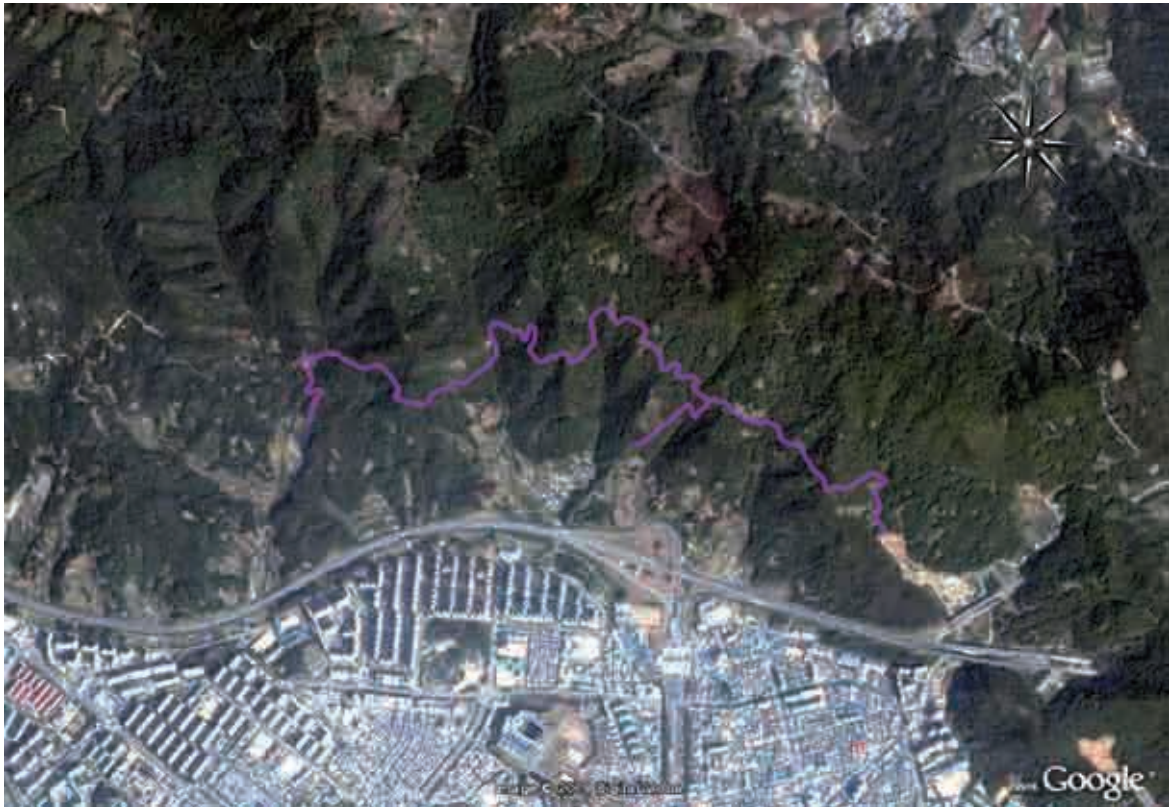
현장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로 임도공사 구간 주변의 문화재들이 이번 공사로 인해 훼손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2차로 공사구간을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정밀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구간에 인접한 시지정문화재 등의 훼손 또는 미발견 매장문화재의 노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 비래동 산1번지 및 648번지 일대에 위치한 시유형문화재인 비래사목조 비로자나불좌상과 옥류각, 시기념물인 비래동지석묘군, 동나무로 지정된 비래사 향나무 및 느티나무 등의 보호수 등이 임도신설공사 구간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이번 공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훼손의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들 문화재 분포지역 주변과 임도신설공사 구간 전반에서 새로이 유적 및 유물산포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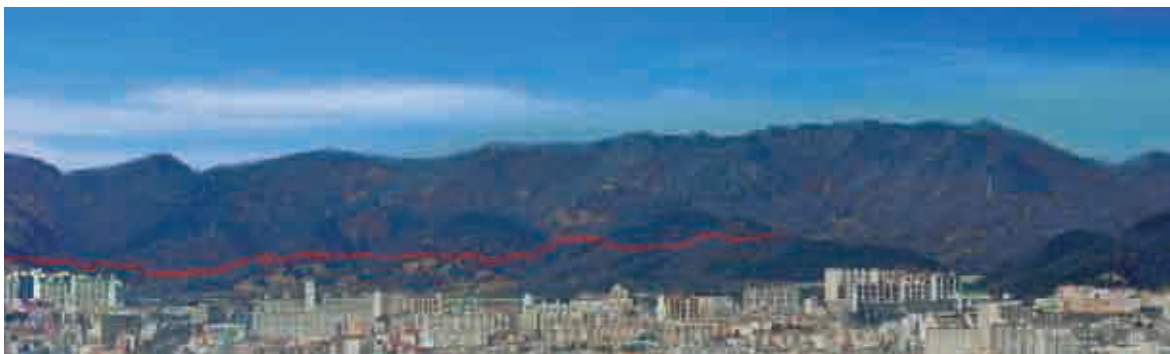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공사가 진행되기 앞서 문화재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사전 조사와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현존하는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문화재 주변의 보존환경까지 고려한 문화재 영향성 검토 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하여 인접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존·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진행된 후에 이번 임도신설 구간에 대한 공사 진행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寫真



【사진 1】 조사지역 일대 위성사진



【사진 2】 조사지역 일대(비래동·송촌동) 전경(남동에서)



【사진 3】 조사지역 일대(송촌동·법동) 전경(남동에서)



【사진 4】 공사구간 초입부(가양공원)



【사진 5】 1구간 공사 시점부(동에서)



【사진 6】 1구간 계단식 경작지(동에서)



【사진 7】 1구간 全義 李氏 집단묘역(동에서)



【사진 8】 1구간 종점부 전경(북에서)



【사진 9】 2구간 시점부 전경(동에서)



【사진 10】 2구간 종점부 전경(서에서)



【사진 11】 3구간 전경(남에서)



【사진 12】 3구간 시점부 전경(남에서)



【사진 13】 3구간내 우측산 약수터(서에서)



【사진 14】 3구간 남도 약수터(서에서)



【사진 15】 3구간 固城 李氏 묘역(서에서)



【사진 16】 3구간 종점부 전경(북에서)



【사진 17】 4구간 시점부 비래사 전경(남에서)



【사진 18】 4구간 비래사 향나무 전경(서에서)



【사진 19】 4구간 비래사 비로자나불좌상



【사진 20】 4구간 옥류각 전경(남에서)



【사진 21】 4구간 옥류각 현판



【사진 22】 4구간 종점부 전경(남에서)



【사진 23】 5구간 시점부 전경(동에서)



【사진 24】 5구간 법동선사유물산포지 전경(동에서)



【사진 25】 5구간 종점부 법동 소류지(남동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사 업	사 업 명	계족산 임도신설공사 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기간	2008년~2009년		
	사업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 비래동 일원(계족산 일원)					
내 용	면 적	전체사업면적	42,723㎡(연장 4.6km)		지표조사면적	42,723㎡(연장 4.6km)	
	사업시행자	원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공원관리사업소		지표조사 의뢰기관	대전광역시산림조합	
지 표	조사기관	고고,역사, 민속 분야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책임조사원	전일용	조사원	서대원
	조사기간	2008. 12. 22 ~ 2008. 12. 31 (현장조사일수 1일)					
조 사	조사비용 *계약금액기준	7,216,000원					
조 사 결 과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지정문화재	비래동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시유형문화재 제30호, 10m 이내) 비래동 옥류각(시유형문화재 제7호, 10m 이내) 비래동 지식묘군(시기념물 제33호, 116m 이격) 비래동 향나무(동 보호수, 10m 이내) 비래동 느티나무(동 보호수, 10m 이내)				
	비지정문화재	법동선사유물산포지(10m 이내), 비래동 초연물의 애각(10m 이내) 송촌동 송병하 묘(271m 이격), 비래동 비래암(10m 이내) 송촌동 송요화 묘(290m 이격)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지상문화재					
	매장문화재						
		건축물					
		민속자료					
조사기관 종합 의견	<p>이번 계족산 임도신설공사 구간은 공사계획 수립 단계에서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개발 행위 이전에 시행되었어야 할 문화재 관련 협의 및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된 상태였다. 지표조사 결과 다행히 임도구간에 인접한 시지정문화재들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은 발생되지 않았고, 공사 구간 전반에서 기존 문화재 외에 새로운 유적·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p> <p>그러나 문화재 주변의 보존환경까지 고려한 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을 조속히 진행하여 인접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존·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진행된 후에 이번 임도신설 구간에 대한 공사 진행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p>						
기타 특이사항							

2008년 12월 31일

(재)금강문화유산연구원 (인)

(財)錦江文化遺産研究院 地表調査報告 第2008-10輯

鷄足山 林道新設工事 區間内
文化財 地表調査 報告書

인쇄일 : 2008. 12. 30

발행일 : 2008. 12. 31

편집 : (財)錦江文化遺産研究院
발행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55-1 대청빌딩 3층
Tel. 042)824-2747
Fax. 042)824-2748

인쇄 : 현대옵셋 Tel. 042)624-4429